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 조형물 설치 한창

9월 7일 개막 '휴머니티' 주제  
55일간... 190여 디자이너 참여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비엔날레는 전시장으로 들어서기 전, 상징 조형물을 만나는 즐거운 체험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름과 공생'의 의미를 담은 상징 조형물은 현재와 미래의 '인간다움'의 가치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올해 비엔날레 주제를 구현한 작품들로 기존 상징물이 단순히 '전시'된 조형물이었던 데서 벗어나 관객들이 직접 이용하고 휴식을 취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본 전시장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외벽에 행사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전시관 2층 중정에는 상징 조형물 '인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뉴시티(Newcity)' 선정 시카고 디자인 50인 중 12위에 랭크된 장성(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 작가의 작품인 '인상'은 사람 얼굴 형상을 한 노란색과 붉은색 대형 설치 작품으로 공업적 프로세스인 인젝션 몰딩을 통해 만들어진 모비(Mobi) 모듈을 이용해 제작했다.

상징물은 전시 개막 전까지 두 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네덜란드 건축가 빈센트와 윈디의 'Urban Bloom'은 휴식을 전하는 '팝업 가든'이다. 17m 규모로 제작되는 도시정원은 나뭇잎 컬러가 투명하게 비치는 풍선이 공



오는 9월 7일 개막을 앞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메인 공간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 행사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간 위에 매달려 떠다니는 오브제로 표현되며 작품 소재는 리사이클이 가능한 산업용 자재와 자연의 야생식물을 혼용했다.

그밖에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이너로 대한민국디자인 대상 등을 수상한 이석우 작가의 'the curtained wall'은 관객이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그늘막을 제공하는 작품이다.

한편 이번 비엔날레의 전시 주제는 '휴머니티(HUMANITY : Human+Community)'다. 사전적 의미로 '인간다움', '인간애' 등을 뜻하는 '휴먼(Human)'과 '커뮤니티'를 조합해 만든 단어로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가 나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확산돼 갈 때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독일 등 30개국 190여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주제관과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 등으로 채워지는 5개의 본전시를 비롯해 상징조형물, 특별전, 교육프로그램, 국제학술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55일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 티켓 가격 일반 1만 3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 9월 6일까지 사전예매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예총 '예술광주' 봄·여름호

광주예총(회장 임원식)이 발간하는 잡지 '예술광주' 봄·여름호(통권 제64호·사진)가 나왔다.



이번호 기획은 지난 2월 새로 취임한 제10대 임원식 회장의 이야기 등을 다룬 '신임 회장 취임 인터뷰'와 연예인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 등 각 협회들이 협회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협회장에게 듣는다' 등이 특집으로 실렸다.

광주예총이 주관하는 '제10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이하 아트광주 19)에 대한 소식도 다뤘다. 이번 '아트광주 19'는 오는 9월 19-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13개국 168개 부스와 '학교재', '박영덕 화랑', '갤러리S', '자운갤러리', '백제화랑' 등 89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이밖에도 '제27기 시민예술대학' 소개와 함께 영·호남간 문화, 인적교류를 진행하는 '달빛동맹' 공연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코너도 실렸다. 또 우리지역 문학인에 대해 연구하며 시인 박용철을 재조명하는 평론, 조대연 사진작가 인터뷰, 광주시 문화재자료 제5호 '만귀정'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비엔날레 사무처장 공무원 파견 규탄 광주 문화예술 7개 단체, 성명서 발표

광주민예총,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장애인 문화협회, 상상실현네트워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7개 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용섭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행정 공무원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개방형 민간 사무처장제 도입 취지를 살려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광주시가 (재)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 재공모에 나서지 않고 시청 행정공무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용섭 시장이 민선 7기 시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개방형 공직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지난 2015년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약속한 광주비엔날레 혁신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용섭 시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의 거취를 포함해 광주시 문화행정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그림, 찰나를 담다' 28일~9월29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공연장 안 갤러리에서 만나는 무대 위의 예술가.'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 갤러리가 다양한 예술가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을 모아 '그림, 찰나를 담다' (28일~9월29일)전을 개최한다.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와 흥겨운 장구 소리가 들려온다. 어린 발레리나들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김미영, 김하슬, 오광섭 작가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공연 모습과 무대 뒤 풍경 등을 다채로운 시각으로 표현해온 작가들로 예술이 전하

오광섭 작  
'Rehearsal'



는 위로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중 예술가들을 주제로 한 작품을 더해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22점을 만날 수 있다.

김미영 작가는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회상하며 화면에 담아낸다.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화음을 맞추는 연주자들, 고운 한복 자태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이의 모습에서 예술가들의 열정과 함께 따스한 위로의 느낌도 풍겨나온다.

김하슬 작가는 현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의 공간에서 이야기를 펼쳐낸다. 무희의 춤사위, 나팔을 부는 아이들, 피아노를 치는 남년의 모습 등 작가가 묘사한 장면들은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보다는 다채로운 색감과 자유분방한 붓터치, 조금은 왜곡된 인물상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느낌을 전한다.

오광섭 작가는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화려한 공연 풍경 대신 적막한 무대 뒤와 연습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녀들의 모습을 정감한 붓질로 표현했다. 매무새를 갖추고 토슈즈를 갈아신는 무용수들의 모습에서 공연을 앞둔 설렘과 긴장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그밖에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중 김창덕의 '최승희(장고춤)', 남종모의 '한국인의 춤'과 '살풀이', 장현우의 '신인류-연주', 임은순의 '무드' 등 공연 모습을 담은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관람시간 오전 10시30분~오후 5시30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28일

### '문화가 있는날'



'에드뮤직컴퍼니'



'살롱 드 오수경'

문화 행사로 맞이하는 한 달의 끝, '문화가 있는날' 행사가 이번달에도 펼쳐진다.

밴드 '살롱 드 오수경'이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음악회 'Salon de Tango'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스토르 피아졸라 등 유명 작곡가의 탱고 곡과 살롱 드 오수경의 자작곡들을 무대에 올린다.

이날은 영화 '로라, 여름날의 그림자' 삽입곡 '슬픈 로라'로 막을 올리고, '파리의 숨결', '만남', '관음증' 등 살롱 드 오수경의 자작곡 7곡을 잇따라 무대에 올린다. 이어 피아졸라의 '망각'을 연주하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살롱 드 오수경은 리더 오수경(피아노)을 중심으로 장수현(바이올린), 지박(첼로), 고

### '살롱 드 오수경'

#### '에드뮤직컴퍼니' 공연

중성(베이스)이 함께하는 4인조 밴드로, 지난 2013년 앨범 'Salon de Tango'로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했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재즈 밴드 '에드뮤직컴퍼니'는 2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재즈 공연 'Ella & Duke songbook'를 공연한다. 이날 공연은 재즈 가수 엘라 피츠제럴드와 피아니스트 듀크 엘링턴이 1957년 발매한 앨범 'Ella Fitzgerald Sings the Duke Ellington Song Book'에 수록된 곡으로 무대를 채운다. 레퍼토리는 'I got it bad', 'Take the A train', 'Sophisticated lady', 'In a mellow tone', 'Caravan' 등이다.

5인조 밴드 '에드뮤직컴퍼니'는 재즈 프로그램 '다시 피아나는 희망의 빛고을 재즈' 등을 운영했으며,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순천재즈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활동을 펼쳤다. 무료 공연(선착순 100명).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10월12일 '실용&생활음악 콩쿠르'

제2회 전국 실용&생활음악 콩쿠르가 오는 10월 12일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관에서 열린다.

(사)광주음악협회(회장 김성훈)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실용음악(재즈피아노, 기타, 드럼, 관악기, 보컬, 미디어)과 생활음악(오카리나, 우쿨렐레, 색소폰, 아코디언, 성악독창) 부문으로 나뉜다. 실용음악은 학생부만, 생활음악은 학생부와 일반부가 참여할 수 있다.

재즈음악 등을 전공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부문 대상 수상자는 광주음악제에 출연할 수 있다. 생활음악은 비전통 음악인을 참가대상으로 하며, 성악부문 대상 수상자는 ACC 시민오케스트라와의 협업 무대를 갖게 된다.

신청기간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